

12월9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7장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본장은 일곱 인 심판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의 삽입부분으로, 6장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6:17) 대답이기도 합니다.

본장에 기록된 인 맞은 자의 숫자인 십사만 사천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장의 말씀으로 오직 구원받는 사람이 십사만 사천명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본장 9절에서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9-10절) 찬송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는 십사만 사천명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1-2절). 그런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9장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8장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계속해서 9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해하는 황충으로 비유된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2월10일 화요일

10장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0장과 11:14절까지의 부분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삽입부인데 여기에는 세계 복음화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속은 쓰립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11장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전망합니다.(15-19절).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은 무엇인가요? (15절)

12장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는 자

본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장면으로 구성되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탄의 시도(1-12)와 이에 실패하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시도(13-16), 그리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17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9절)가 어째서 분을 내며 이 땅으로 내쫓리게 되었나요?

12월11일 수요일

13장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본장은 '두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정권이라 할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게 되나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서울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정신과 삶 전체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거짓 회심, 거짓 기적, 거짓 치유, 거짓 체험, 그리고 거짓 복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세력과 모든 것은 결국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14장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본장에서는 하늘 교회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 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는데, 시온 산은 하늘 나라에 대한 상징적 지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 산에 서신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곁에는 십사만 사천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4-5절을 보고 찾아주세요.

15장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본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는 이제 심판의 마지막이 될 일곱 재앙을 담당할 천사들입니다(1).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곱 천사가 받은 금 대접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있나요?

12월12일 목요일

16장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니 아니하더라
 일곱 대접 심판은 앞의 일곱 나팔 심판과 내용면에서 평행을 이루면서 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순서로 보면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땅, 바다, 강과 물, 해(달, 별)로 이어지는 것이 동일합니다. 다섯째는 사탄의 위(짐승의 보좌)와 관계가 있고,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임하며 마지막 일곱째는 하늘의 큰 음성,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 지진과 우박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나팔 심판이 1/3에 미치는 심판이라면 대접 심판은 전체에 미치는 심판이고, 나팔 심판이 환경을 통한 간접적 심판이라면 대접 심판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입니다.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보고 겪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9,11절).

17장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본장은 음녀로 일컬어지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가진 음녀 이미지는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예루살렘 이미지와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

18장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17장에서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17:18),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두 가지로 만국을 미혹했는데,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고(14:8; 17:2; 18:3), 둘째로 만국을 복술로 미혹했습니다(18:23).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나요?
 1) 8절: ()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2) 10,17,19절: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12월13일 금요일

19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큰 성 바벨론은 일시에 망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고(1-10),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19:11-21:8).
 본장은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장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사도는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혀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1-3절). 무저갱에 천년을 갇혀있다가 잠시 풀려난 사탄의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고(7-10), 그 후 요한은 최후 심판의 광경을 봅니다(11-15절). 이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심판과 일치하고(마 25:31~46), 구약의 예언(단 7:9~10) 그리고 시편의 말씀(시 7:6~8; 47:8~9)과도 같습니다.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잠시 놓였지만, 결국 던져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본의 환상내용은, 종말론적 구원(1-8), 그 도성의 영광(11-14)과 규모(15-21), 그리고 그곳에서의 낙원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며, 새 예루살렘으로의 초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준비된 성도로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로 2024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통독이 모두 끝났습니다. 1년동안 말씀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성도님들 한분 한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함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통독지는 12/22일 주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시편 1:1-3, 새번역)